

# 웨이인 맥그레거의 「독립체」에 나타나는 몸에 대한 시각\*

- 질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와 '탈구적 실행' 개념을 중심으로 -

이 나 현\*

I. 서론	IV. 비유기적 신체로서의 무용수의 몸
II. 웨인 맥그레거의 안무 특성	V. 결론
III. 질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와 '탈구적 실행'	참고문헌
	Abstract

## 1. 서론

본 연구는 영국의 신예 안무가 웨인 맥그레거(Wayne McGregor, 1970~)의 「독립체(Entity)」에 나타나는 몸에 대한 시각을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의 '기관 없는 신체(corp sans organes)'와 '탈구적 실행(exercice disjoint)'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무용수의 몸을 감정의 표현이나 이야기의 전달체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는 잠재적인 신체로 보는 시각을 통해 인간 정체성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일으키는 맥그레거의 작품의 의의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그가 구현하는 무용예술과 인간 신체의 확장은 춤과 움직임의 부정이 아닌 극대화라는 방식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기존의 질서와 틀을 넘어서는 사고를 강조하는 들뢰즈의 사상 중 유기체적 질서가 존재하기 이전의 인간의 신체를 이야기 하는 '기관 없는 신체' 개념, 그리고 인식의 틀 혹은 고정 관념을 넘어선 실행을 일컫는 '탈구적 실행'을 중심으로 웨인 맥그레거의 몸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 본 논문은 2011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현대무용가(유빈댄스 대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졸업, ubindance@naver.com

무용예술의 영역을 확장하고 인간 존재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맥그레거의 작업을 현대 사상의 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질 들뢰즈의 사상을 바탕으로 읽어낸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들뢰즈의 사상과 무용예술에서의 신체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sup>1)</sup>나 들뢰즈의 사상을 무용 연구에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의의를 밝힌 선행연구들<sup>2)</sup>은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작품해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독창성을 찾을 수 있다. 그 중 들뢰즈 사상을 무용예술의 해석에 수용하는 의의를 밝히며 피나 바우쉬를 '기관 없는 신체' 개념을 통해 분석한 김말복, 나일화(2008)의 연구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다. 또한 한국에는 생소한 웨인 맥그레거의 작업을 소개하는 의의도 함께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대상은 웨인 맥그레거의 작품 중 자신의 무용단 랜덤 댄스(Random Dance)<sup>3)</sup>와의 작업인 「독립체」(2008)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맥그레거는 신예 안무가로서 신체자체에 초점을 맞춘 작품을 통해 기존 무용 언어를 벗어나 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안무가이다. 그는 여러 무용단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작업을 선보이고 있는데 그가 스스로 자신의 무용단을 '안무를 발전시켜나가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실험할 수 있는 연구수단'<sup>4)</sup>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신의 무용단과의 작업에서 그의 작품관이 더욱 확실히 드러나리라는 판단에 근거하여 랜덤 댄스와의 작업 중 「독립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작품 「독립체」의 분석은

- 
- 1) 김정은(2001), 들뢰즈의 기관없는 신체를 통한 무용예술에서의 미학적 신체관,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2(1):447-466.  
김정은(2007), 들뢰즈의 생성론에 근거한 무용에서의 신체지각방식, 숙명여자대학교 체육학과 박사학위청구 논문.
  - 2) 김말복, 나일화(2008), 무용미학의 논의를 위한 들뢰즈 사상의 수용 가능성-Pina Bausch 작품에 나타난 '기관 없는 신체'를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25: 1-31.  
나일화(2010), 무용예술의 미학적 논의에 있어서 질 들뢰즈 사상의 수용과 의의,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3) 랜덤 댄스의 공식명칭은 Wayne McGregor/Random Dance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랜덤 댄스(Random Dance)로 표기하기로 한다.
  - 4) Mcgregor, Wayne(2002), Interviewed on Ballet into the 21st Century Conference, <<http://www.ballet.co.uk/magazines>, 2011. 9. 18>.

2008년 프랑스 리옹의 춤 비엔날레 공연실황을 녹화한 DVD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맥그레거가 신에 안무가인 관계로 그에 대한 문헌자료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무가의 인터뷰와 작품 리뷰, 에세이 등의 전자 자료들도 적극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웨인 맥그레거의 작품성향을 살펴보고 이어서 이론적 배경이 되는 들뢰즈의 사상 중 ‘기관 없는 신체’와 ‘탈구적 실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인간의 유기체적 질서를 넘어서는 맥그레거의 몸에 대한 시각을 논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앞선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 보고 확장된 신체에 대한 시각의 결과물로서의 무용예술의 의미를 전개하고자 한다.

## II. 웨인 맥그레거의 안무 특성

웨인 맥그레거는 영국 리즈대학(Leeds University)에서 현대무용을 공부하고 20대 초반부터 안무를 시작하였다. 1992년 자신의 무용단 랜덤 댄스를 창단하고 「사이보그(Cyborg)」(1995)란 작품으로 무용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그는 발레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영국로열발레단(The Royal Ballet) 상임안무가로 부임하여 활동 중이며 파리 오페라 발레단(Paris Opera Ballet), 호주 발레단(Australian Ballet) 그리고 뉴욕 시티 발레단(New York City Ballet)과 같은 세계 주요 발레단의 안무를 맡고 있다.”<sup>5)</sup>

맥그레거는 무용을 스토리의 전달이나 감정의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신체의 메커니즘을 변형시켜 인간 신체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이 그의 작품의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신체는 표상적 예술의 수단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다. 비표상적 예술로서의 무용예술에서의 신체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며 그 자체로 감각의 전달체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는 “독특한 움직임 언어와 테크놀로지의 수용이라는 두 측면”<sup>6)</sup>의 안무적 특성

---

5) 랜덤 댄스 홈페이지, <[http://www.randomdance.org/wayne\\_mcgregor/biography](http://www.randomdance.org/wayne_mcgregor/biography), 2011. 8. 11>.

6) 위의 웹사이트.

을 보이고 있다. 이 두 측면은 모두 인간 신체의 가능성의 탐구라는 그의 작업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모토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 볼 수 있다. 맥그레저의 테크놀로지 수용은 창작과정에서부터 무대 효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창작과정에 있어서 테크놀로지의 수용은 다양한 신체의 가능성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며 독특한 움직임은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가 과학이라는 학문 특히 인지과학, 심리학 또는 신경학 등과의 공동 연구 작업을 시작한 것은 2004년 「운동장애(AtaXia)」라는 작품부터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University of Cambridge)과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의 과학자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정상적 움직임의 메커니즘을 깨부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와 공연의 연계작업은 2005년 「애뮤(Amu)」로 이어졌으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독립체」 또한 인간의 두뇌와 신체의 움직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일환이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젝트들은 아직 실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 낼지도 큰 관심을 끈다. 이러한 과학 기술의 활용과 과학이라는 학문과의 연계작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 움직임’ 혹은 인간의 ‘정상적 움직임’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 된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정상적인 행동 메커니즘을 연구하여 정상적이고 습관적인 뇌와 신체의 연결고리를 끊어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은 이론적 배경이 되는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와 철학적으로 같은 맥락에 서있다. 하지만 맥그레저가 들뢰즈의 철학을 직접적으로 차용하였다는 근거자료는 없다. 다양성과 잠재성을 긍정하는 들뢰즈의 철학이 현대 사상의 큰 흐름을 주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맥그레저는 이러한 사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의 예술작품을 통해 구현해 내고 있는 것이다. 철학자는 사유를 통해 예술가는 작품을 통해 같은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맥그레저의 신체 메커니즘에 대한 생각은 무용예술에서는 ‘무용적 움직임’에 의문을 던지는 결과를 낳는다. 그는 “우리가 정상의 상태라고 말하는 행동, 무용수로서의 이상적인 몸과 아름다운 행위가 아닌 기능장애(dysfunction)나 잘못된 행위(misbehavior)에 관심”<sup>7)</sup>을 보인다. 이는 장애 또한 인간 신체의 가능성의 한 측면

---

7) 「Entity」(2011), DVD.

이라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며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움직임이 아닌 ‘잘못된’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안무에 변화를 불러오는 방식인 것이다.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체계의 변화가 신체의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이 이러한 작업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상상을 하면 같은 방식으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sup>8)</sup>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움직임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상상의 틀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유기체라는 틀 안에서의 인간신체의 이해를 벗어나 그는 끊임없이 ‘인간적 혹은 무용적 움직임이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던지며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을 춤을 통해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안무과정을 통해 무대 위의 무용수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태어난다.

「독립체」는 2008년 영국 새들러스 웰스(Saddler's Wells)극장에서 초연된 작품으로 ‘인공지능의 안무적 독립체(artificially intelligent choreographic entity)라는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생각에서 시작된 작품이다.’<sup>9)</sup> 이 작품은 과학과의 공동연구의 한 과정이지만 작품의 내용 자체가 과학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작품은 춤 또는 안무과정이 본능적(instinctive)인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는 “안무과정 또는 움직임을 받아들이고 춤을 추는 과정에 작용하는 공식(formula)이 존재할 것”<sup>10)</sup>이라 생각한다. 그는 이러한 공식을 밝혀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하에 과학과의 연계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과학과 무용의 연계작업은 두 학문의 영역을 넘나들며 진행되고 있다. 그는 “안무가가 움직임을 만들고 무용수가 움직임을 받아들이고 관객이 무용을 관람하는 것 모두 각자의 필터(filter)를 거쳐 이루어지며 이것은 그 사람의 지식, 성향 등에 의해 만들어 진 것”<sup>11)</sup>이라 말한다. 필터의 교체는 행동과 반응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러한 필터의 작용을 밝혀내는 것이 그의 관심사이며 이는 그의

8) 랜덤 댄스 홈페이지, <<http://www.randomdance.org/video>, 2011. 8. 13>.

9) Jennings(2011), 영국신문 가디언지에 실린 리뷰기사, <<http://www.guardian.co.uk/stage>, 2011. 8.12>.

10) Excerpt from Wayne McGregor's 「Entity」, with audio interview, <<http://www.dancemedia.com>, 2011. 9. 18>.

11) 위의 영상물.

무용단, 랜덤 댄스와의 최근 작품들의 공통적인 출발점이기도 하다.

「독립제」는 작품의 출발점부터 ‘필터’, 즉 사고의 틀이나 안무의 일반적 형식을 넘어서는 실험을 위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들뢰즈의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그가 말하는 필터는 앞으로 살펴 볼 들뢰즈의 사상 안에서는 ‘유비적(analogical) 사고’나 ‘공통감(sens commun)’으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맥그레거는 춤과 과학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체계 너머의 비규정적 지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가 바라보는 비규정적 지대에는 유기체적 질서를 벗어나 인간이라는 명사를 벗어던진 춤추는 신체가 있다. 그리고 이 비규정적 지대는 기존의 무용이라는 경계도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다.

### III. 질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와 ‘탈구적 실행’

본 장에서는 질 들뢰즈의 사상 중에서도 논의에 직접적으로 거론 될 ‘기관 없는 신체(corp sans organes)’와 ‘탈구적 실행(exercice disjoint)’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들뢰즈의 사상은 확고부동한 질서를 부정하고 ‘공통감’을 뛰어넘는 사고와 걸음으로 드러난 현실태(actualite)보다 잠재적인 것(le virtuel)을 강조한다. ‘기관 없는 신체’나 ‘탈구적 실행’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다. 들뢰즈의 철학에서 잠재적인 것이란 현실태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기존의 개념들로 설명될 수 없는 다양성 그 자체를 지칭한다. 잠재적인 것은 표상할 수 있는 대상 너머에 있는 초월적(transcendant)인 것이다. 다시 말해 초월적인 것은 “어떤 공통감의 관점에서는 결코 파악될 수 없는 것”<sup>12)</sup>이다. 잠재적이고 초월적인 것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공통감은 보편타당하다고 믿고 있는 공동체의 암묵적인 약속이며 우리의 생각을 가두는 하나의 틀이다. 들뢰즈는 이러한 공통감이거나 견해를 예술이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고정된 사고의 틀을

12) 질 들뢰즈(1968a), 『차이와 반복』, 김상환(역)(서울: 민음사, 2004), p.318.

넘어서기 위한 실천이 '기관 없는 신체'와 '탈구적 실행'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인식의 틀을 확장 시켜 표상(representation) 가능한 현실태 너머의 잠재적인 것을 사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관 없는 신체'는 각 기관들의 고정된 용법과 전체로서의 유기적 질서를 부정하는 개념이다. "기관 없는 신체는 기관에 반대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유기체라고 부르는 기관들의 유기적 구성에 더 반대한다."<sup>13)</sup> 여기서 유기체는 하나의 질서이기 보다는 인간의 몸을 가두는 틀이다. 유기적 질서는 획일적이다. 획일적으로 작용하는 유기적 질서가 지배하지 않는 신체가 바로 '기관 없는 신체'다. 살아있지만 비유기적인 신체는 각 기관의 유기적 용도를 넘어서게 되며 새로운 조합과 용도부여가 가능한 잠재적인 신체가 된다. 이렇게 유기적 질서를 벗어난 신체는 무어라 명명되어질 수 없는 비규정적 지대로 넘어가 인간이라는 틀조차 넘어서 짐승과 인간의 경계선에 위치하게 된다. 이는 인간을 인간이라는 명사 안에 가두는 우리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장치이다.

'탈구적 실행'<sup>14)</sup>은 경험적 실행(exercice empirique)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즉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 안에서 감각되어지는 것을 경험적 실행이라고 본다면 이를 넘어 비규정적 지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탈구적 실행'이다. 재현 할 대상, 표상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지만 경험 되어지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즉 "공통감의 관점에서 결코 파악될 수 없는 것을 포착"<sup>15)</sup>하는 것이며 우리의 인식의 틀 안에서 설명되어 질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무용 스텝에 대입 시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아라베스크(arabesque)를 하나의 총체적인 움직임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를 쪼개어 팔의 움직임, 다리의 움직임, 머리의 위치와 몸통의 위치 등을 각각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기관 없는 신체'라 할 수 있다. 즉 아라베스크라는 총체적인 움직임을 위해 유기적으로 조직화 되어 있는 팔, 다리, 몸통, 고개의

13) 질 들뢰즈(2002), 『감각의 논리』, 하태환(역)(서울: 민음사, 2008), p.57.

14) 탈구적 실행은 우월한 실행이나 초월적 실행과 구별되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들은 공통감에서 벗어났을 때 인식 능력 사용이 맞이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용어들이다.(질 들뢰즈(1968a), p.318, 참고.)

15) 같은 쪽.

움직임을 독립시키는 것이다.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아라베스크 움직임에 종속되지 않은 팔은 다리가 기존의 아라베스크 방향으로 들릴 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질 수 있는 다양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 움직임의 방향은 물론 범위를 확대시켜 아라베스크라는 이름하에 인식되어지는 팔의 움직임 범위나 다리의 움직임 범위를 넘어선다면 그것은 ‘탈구적 실행’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무용 움직임이나 일상적 움직임이 보여준 움직임들의 각도나 방향을 넘어 섬으로써 우리 신체는 다양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다음 장에서 작품 분석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IV. 비유기적 신체로서의 무용수의 몸

### 1. ‘기관 없는 신체’로서의 무용수의 몸

발레의 고정된 스텝들, 그에 반기를 들고 탄생한 현대무용의 자연스러운 움직임들, 현대무용의 다양한 테크닉들,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제스처, 인위적이지 않은 일상의 움직임들. 이 모든 것들은 무용예술에 쓰이는 다양한 움직임들을 묘사한 것이다. ‘무용적’이라 할 수 있는 위의 움직임들에 포함되지 않는 움직임의 가능성 혹은 무용은 물론 인간 신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맥그레저가 부정하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무용의 형식이나 스타일이 아니라 인간 신체의 유기적 질서 그 자체이다.

맥그레저가 ‘기관 없는 신체’에 도달하기 위해 흘트려 놓은 것은 무용수의 척추이다. 척추는 무용을 떠나 일상의 신체 움직임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인간은 척추를 곧추 세워 직립 보행을 할 수 있으며 척추를 통해 신체의 유기적 질서를 완성해 나간다. 무용에 있어서도 척추를 수직으로 세운 자세는 발레나 현대무용 테크닉의 기본자세로 통용된다. 반면 「독립체」 전반에 걸쳐 수직으로 곧게 뻗은 척추는 다양한 방향으로 굴곡을 만들고 그 결과 그의 무용수들에서는 상식적인 신체의 정렬은 찾아 볼 수 없다. 골반 위에 일직선상으로 얹혀 있어야 할 두 어깨는 휘어진 척추 덕에 옆으로 심하게 돌출되어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때론 과하



게 뒤로 젖혀진 골반의 움직임 덕에 상체는 불편하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척추의 뒤틀림과 계속되는 변화는 척추를 중심으로 질서 잡힌 신체의 균형감과 유기적 질서를 사라지게 한다.

수직의 질서를 벗어난 불편한 기본자세 속에서 그가 만들어 내는 것은 더 이상 무용의 고정된 스텝들이 아니다. 이는 일상의 정상적인 움직임에서도 벗어나 있다. 맥그레거의 춤은 “유기체를 몸체로 만드는”<sup>16)</sup> 움직임이다. 이것은 일상의 몸에 대한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무용수의 몸에 대한 기준에서도 그 상식을 벗어나 있다. 그들의 움직임은 앞에서 언급한 ‘발레의 고정된 스텝들, 그에 반기를 들고 탄생한 현대 무용의 자연스러운 움직임들, 현대무용의 다양한 테크닉들,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제스처, 인위적이지 않은 일상의 움직임들’ 중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 신체의 또 다른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맥그레거의 작품을 단순히 인간신체의 기능적 측면의 발달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가 비유기적 신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의 틀을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확고부동한 체제나 질서는 척추의 뒤틀림과 함께 흔들리며 ‘인간적’ 혹은 ‘무용적’이라는 정의에 의문을 던진다. 그는 명확한 한계선을 갖는 고정된 사고의 틀을 넘어 무한한 잠재적 세계를 바라보며 ‘정상적’ 혹은 ‘일반적’인 길을 부정한다. 일반적으로 비정상이라고 여겨지는 움직임의 방향이나 진행방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비정상을 정상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가능



〈그림 1〉 「독립체」<sup>17)</sup>



〈그림 2〉 「독립체」<sup>18)</sup>

16)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1980), 『천 개의 고원』, 김재인(역)(서울: 새물결, 2001), p.329.

17) 「Entity」(2011). DVD.

18) 영국 신문 가디언지, <<http://www.guardian.co.uk/stage/2011.8.12>>.

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독립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파트는 나바라 사중주단(Navarra Quartet)이 라이브로 연주하고 조비 탈보(Joby Talbot)의 곡을 바탕으로 한다. 두 번째 파트는 대조적으로 존 홉킨스(Jon Hopkins)의 빠른 비트의 전자 음악에 맞춰 이루어진다. 하얀 바닥이 깔린 무대의 삼면에는 비행 물체의 날개와도 같은 움직이는 투명한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무용수들이 조작할 수 있게 고안되어 있다.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어 조명이 투사되기도 하는 이 대형 스크린들은 작품이 진행 됨에 따라 바닥에서 중간 위치로 후반에는 위로 들려져서 라비 디프레스(Ravi Deepres)의 영상이 투사되기도 한다. 작품 전반에 걸쳐 어떤 스토리나 감정 표현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유기적 질서에서 벗어나 '기관 없는 신체'가 된 무용수들의 몸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형(transformation)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용수들의 변형은 우리가 표상할 수 없는 무엇으로의 변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변형은 개개의 무용수들의 움직임들에서는 물론이고 듀엣이나 트리오에서 보이는 무용수들의 소통방식을 통해 더욱 잘 드러난다.

맥그레저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다양한 듀엣들과 트리오로 연결되는 구성을 자주 보여주는데 이는 혼성으로 구성되는 경우만큼 동성으로 짜여진 경우도 많다. 솔로가 어느새 듀엣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커플의 듀엣이 진행되다가 파트너가 서로 바뀌거나 전체의 군무나 각각의 솔로로 교묘하게 변화되어 어진다. 이들의 듀엣과 트리오에서 성의 구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특히 작품 초반에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각각의 남성 무용수들의 듀엣들은 새로운 생명체의 교미를 연상시킨다. 혹은 두 개의 신체가 만나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로 변형을 이룬다(〈그림 2〉 참조).

듀엣들은 어떤 재현적 스토리나 구체적인 상황설정이 없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춤추는 두 무용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겐 생소한 언어다. 일반적인 무용동작에서 보여지는 손으로의 제스처나 접촉, 일상의 움직임을 수용한 사실적인 표현을 넘어서 이들의 움직임은 온몸으로 서로를 감지하고 소통한다. 비유기적인 기관 없는 신체가 그 어떤 기관으로도 새로운 용법을 만들어 내고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그들은 온몸에 촉수가 돋

은 듯 온몸으로 자극하고 반응한다. 이들이 자극을 주고 반응을 하는 움직임들은 관객들을 “침승과 인간의 구별 불가능함의 지대”<sup>19)</sup>로 이끈다. 거기에는 기존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의 세계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신체간의 새로운 소통방식을 보여주는 이들의 춤에는 어떤 특정한 인물도 스토리도 없으며 여성과 남성의 구분도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비구분의 중성적 특성은 의상에서도 나타난다. 남성이나 여성의 이미지를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의상은 단지 무용수의 신체와 움직임을 가장 잘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이다. 움직임에 있어서도 여성적 혹은 남성적 특성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남성들은 여성 못지않은 유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 또한 남성 무용수 못지않게 힘 있고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성의 구분을 버리고 중성적으로 보이며 각 신체 기관의 새로운 용법을 찾아 인간이라는 상식적 틀을 넘어 선 채 불특정한 생명체 즉 ‘기관 없는 신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비유기적 신체가 된 무용수들의 이동 방식은 더 이상 ‘걸기’나 무용의 특정 스텝에 의존하지 않는다. 작품의 중반, 하얀 티셔츠를 벗으며 의상의 변화를 주며 군무진이 무대의 하수에서 상수로 등장하는 장면에서 무용수들은 더 이상 오른발이 나가면 왼손이 나가는 질서를 따르지 않으며 ‘걸기’라고 이름 지을 수 없는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 운동의 진행 방향 또한 앞으로가 아닌 옆으로 그리고 발의 이동이 먼저가 아닌 어깨를 앞세운 상체의 움직임에 의한 중심이동을 보여준다. 얼핏 보기에 장애인들의 움직임을 닮아 있는 맥그레거의 움직임들은 우리에게 ‘정상적’ 움직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새로운 움직임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기까지 한 움직임들의 나열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무용수들은 그 불편함을 그대로 드러내며 춤을 춘다. 사람이라는 영역을 벗어난 무용수들의 몸짓은 무어라 이름 지을 수 없는 새로운 생명체로 다가오며 이질적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자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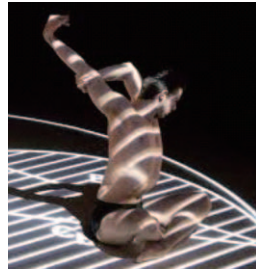
19)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1991),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정임, 윤정임(역) (서울: 현대미술사, 1995), p.258.

## 2. '탈구적 실행'을 통한 비표상적 움직임

일반인들에게 있어 무용은 이미 일반적 상식 이상의 신체의 모습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인체의미를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 되어 진다. 한편 맥그레거의 춤은 이러한 무용의 상식 선 이상의 신체의 사용을 요구한다. 그는 우리 인간의 인식 지평의 잠재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거기에 무용수들을 위치시키기 위해 '탈구적 실행(exercice disjoint)'이 요구된다. 이러한 '탈구적 실행'은 신체의 축이 되는 척추가 사라지고 뼈와 관절에 의해 제한 받는 움직임의 한계를 넘어서는 효과를 낳는다. 맥그레거의 무용수들은 힘 있고 분절적인 움직임과 뼈가 없는 듯이 흐느적거리는 움직임의 혼재 속에서 인간 신체의 가능성을 실험해 나가고 있다. 그는 임계점에 도달하는 관절의 사용과 명확한 움직임 속의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때론 곡예적 이기도 하다. 관절의 과신장(hyperextension)이나 극한의 스트레치 자세 그리고 기이하게 뒤틀린 몸통과 사지는 각 기관의 일상의 경계는 물론 기존의 무용이라는 개념의 경계도 넘어서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각 기관의 활용 범위는 물론 무용의 정형화된 움직임을 넘어서 기존의 명사로 명명될 수 없는 움직임들이 이어진다. 작품 후반부 솔로와 듀엣 그리고 트리오가 무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에서 무용수들은 각 신체기관을 극한의 범위로 확장시켜 사용한다. 그 중 한 장면인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어깨는 탈구되어 뒤로 최대한 당겨져 있고 손목은 불편한 각도로 회전되어 있다. 이렇듯 무용수들의 팔, 다리, 몸통은 우리가 무용적이라 규정지은 선을 넘어서 불편함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무용의 정형화된 움직임은 물론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연결도 그는 부정하고 있다. 맥그레거의 무용수들은 '탈구적 실행'을 통해 비인간적이며 비규정적인 지대로 다가갈 수 있으며 관객으로 하여금 인간의 신체에 대한 새로운 지각을 가능하게 해준다.

'탈구적 실행'과 함께 무용수의 몸을 비인간적 지대로 이끄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신체간의 엉킴에서 나온다. 복잡하게 엉켜져 있는 두 개의 혹은 세 개의 신체는 때론 하나의 생명체로 보인다. 기존 무용에서 보여지는 상대를 들어 올리고 지탱하는 정도의 움직임이 아니라 교묘하게 엉킨 사지와 몸통은 빠른 속도로 변화

되어 나간다. 그 영키는 방식과 각도 또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맥그레거는 기존에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방법들을 찾아 몸체들을 엮어나가고 있다.



〈그림 3〉 독립체

극한의 움직임을 수행하는 맥그레거의 무용수들은 힘겨움을 그대로 드러내며 몸부림친다. 그는 “우리 몸에 익숙하지 않은 동작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힘겨운 노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원한다.”<sup>20)</sup> 무용수들의 움직임에는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고 흔히 무용에서 보여지는 힘들지 않은 척 하는 가장은 보이지 않는다. 그는 ‘정상적’, ‘무용적’ 그리고 ‘자연스러움’이란 개념에 질문을 던지며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모든 움직임들은 자연스러운 코디네이션(coordination)을 의식적으로 파괴하여 다른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내고 각 사자가 의식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되게 한다. “견해들로부터 감각을 떼어내기 위해 작가는 언어를 뒤틀고, 진동시키고, 부동켜안고, 쪼갬다”<sup>21)</sup>고 보았을 때 안무가 맥그레거는 움직임을 ‘뒤틀고, 진동시키고, 부동켜안고, 쪼갬다.’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분절적이고 힘겹게 이어지는 움직임들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또 다른 측면을 엿보게 된다.

무용수들의 힘겨운 움직임들은 인간 신체의 아직 질서 잡혀지지 않은 손, 손목, 어깨, 골반, 발목, 무릎 등의 세분화된 기관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질서 지워나가는 듯 보인다. 예를 들어 90도의 각도로만 꺾이는 손목을 그 이상의 각도로 꺾는다면 지 다리가 옆으로 들렸을 때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팔의 방향을 의식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고개를 인간의 한계점을 넘어 뒤로 젖혀지게 하는 등의 움직임이 그렇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후반에 다시 이어지는 듀엣에서 각자의 파트너의 신체를 이용해 극에 달한다. 그들은 서로의 신체를 불가능해 보이는 방향으로 꺾고 뒤틀고 흔들어 놓는다(〈그림 4〉 참조).

인간에게 혹은 무용수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향과 범위로의 움직임의 확대를 위

20) 위의 영상물.

21) 앞의 책, p.254.

해 각관절의 ‘탈구적 실행’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맥그레저의 무용수들은 기괴하고 섬뜩하게 다가 오기도 한다. 이들의 춤을 감상하는 관객은 ‘인간적’ 혹은 ‘무용적’이라는 인식의 틀을 넘어선 경험, 즉 ‘탈구적 실행’을 관객의 입장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 맥그레저가 만들어 내는 기괴함은 인간을 초월



〈그림 4〉 독립체

(transcend)하고 있는 무용수의 신체에 대한 시각에 기초한 것이다. ‘탈구적 실행’을 통해 만들어진 무용수의 움직임이나 모습은 우리가 표상할 수 없는 무엇이 되어 있다. 이를 통해 관객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어온 세계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결과를 낳는다.

신체의 극한의 사용을 통한 기괴한 움직임을 연출하는 것 자체는 맥그레저만의 고유한 특성은 아니다. 벨기에 안무가 알랭 플라텔(Alain Platel)의 경우 가학적으로 신체를 다루며 기괴한 형태와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알랭 플라텔의 경우 사실적 텍스트의 사용과 일상복이나 일상의 소품 등을 사용하여 현실성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맥그레저가 ‘탈구적 실행’을 통해 인간을 초월한다면 알랭 플라텔과 같은 벨기에 누벨 당스 안무가들은 가학적 움직임과 형태를 통해 현실태로서 신체의 폭력성과 어두운 측면을 드러내는 차이가 있다. 맥그레저의 ‘탈구적 실행’은 인간의 가학적인 측면 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며 부정이 아닌 긍정을 향하고 있다. 그의 인간 신체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무용예술의 범위를 확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는 기존의 무용적인 것, 인간적인 것에 대한 상식을 넘어 무용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다가선다.

## V. 결 론

본 연구는 「독립체」를 중심으로 웨인 맥그레저의 몸에 대한 시각을 질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와 ‘탈구적 실행’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맥그레저에게 있어 무용수의 몸은 스토리의 전개나 감정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무용수의 신체는 그의 작품의 출발점이자 목적이다. 그가 무용예술에서 주목하는 것은 인간 신체의 메커니즘이며 이러한 관심은 움직임의 메커니즘으로 이어진다. 그가 생각하는 무용수의 몸은 유기적 질서에서 벗어나 각 기관들의 새로운 용법과 자유를 부여받은 '기관 없는 신체'이다. 그의 무용수들은 극한의 '탈구적 실행'을 통해 인간 신체와 인간적 혹은 무용적 움직임의 틀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적인 몸과 무용적 움직임에서 벗어나 있는 맥그레저의 무용수들은 불편함과 기괴함으로 신체의 또 다른 국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무용'이라는 고정된 틀을 넘어서는 작업이며 인간 신체의 유기체적 질서와 이에 대한 고정관념 또한 넘어서는 작업이다.

이러한 무용수의 몸에 대한 관점은 기존의 확고부동한 질서에 의문을 던지며 인식의 틀을 넘어서고자 하는 사고에서 비롯된다. 무어라 규정지을 수 없는 무용수의 몸은 관객에게 새로운 사유를 강요하고 있다. 낯선 신체가 구현하는 낯선 세계는 우리가 보는 것, 안다고 믿는 것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비규정적 지대를 열어 보인다. 무용이라는 범주를 넘어서서 인간의 습관적 움직임과 관습적 행동까지도 뛰어 넘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관객으로 하여금 '무엇이 무용인가?'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한다.

무용예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무용수의 몸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파편화 시키고 이를 재조합하는 작업을 통해 맥그레저는 무용예술의 가능성과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는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자동적인 반응에 역행하며 확고부동한 믿음과 지식에 의문을 던지고 사고의 전환을 강요한다. 즉, 인간 신체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는 맥그레저의 작업은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강요하며 무용예술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참고문헌

질 들뢰즈(1968a),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서울: 민음사, 2004.

\_\_\_\_\_ (2002), 『감각의 논리』, 하태환 역, 서울: 민음사, 2008.

질 들뢰즈, 펠리스 가타리(1980), 『천 개의 고원』, 김재임 (역), 서울: 새물결, 2001.

\_\_\_\_\_ (1991).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정임, 윤정임(역). 서울: 현  
대미술사. 1995.

Wayne McGregor | Random Dance (2011) Entity. Arte France & PMP Penelope  
Production. DVD.

<<http://www.ballet.co.uk/magazines> 2011. 9. 18 >.

<<http://www.dancemedia.com> 2011. 9. 18 >.

<<http://www.randomdance.org> 2011. >

<<http://www.guardian.co.uk/stage> 2011.8.12 >.

논문투고일	2012년	6월	15일
심사일		6월	22일
심사완료일		7월	3일



## Abstract

### A Study on Perspective of Body Presenting in Wayne McGregor's 「Entity」

- Focusing on Deleuze's 'bodies without organ' and 'disjointed practice' -

Lee, Na Hyun

*Departmen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the perspective of body shown in <Entity>, the work of Wayne McGregor, which is based on the concepts of Gilles Deleuze (1925~1995) such as “bodies without organ” and “disjointed practice”.

For McGregor, the dancer's body is not used as a means to develop a story or to express emotion, but the beginning point of a work or a work itself. What he focused on dance art is the mechanism of human body and continues to the mechanism of movements. For him bodies of dancers are different from the bodies which are seen often in everyday life or on the dance performance stage. They are undefined bodies which are having unlimited potential and freedom, and “bodies without organ” which are free from organic order. His dancers are beyond the frames that are confined in human bodies and usual dance performances through the unlimited disjointed practices. So his dancers are showing the different aspects of body with unfamiliar and unusual movements. This is a performance which is beyond the fixed idea about the organic order of body or the usual dance performance.

This idea about dancers' body roots from the thought that is willing to doubt in the stable order and exceed established knowledge. The undefinable dancers' body forces to think in a new way. The unfamiliar world represented by the unfamiliar body is showing the undefinable world throwing doubt on what we see and what we know. Through the process of fragmenting and reconstructing of dancers' body, McGregor's work increases the boundary and possibility of dance art. He makes to throw the doubt in unwavering belief and knowledge and to divert of thinking by swimming against natural movements and automatic reactions. McGregor's work which researches the possibility of human body forces to rethink about human being and

shows the new meaning of dance art.

keywords: Wayne McGregor(웨인 맥그레거), Entity(독립체), Gilles Deleuze(질 들뢰즈), body without organ(기관 없는 신체), disjointed practice (탈구적 실행)